

당신은 민족을 위해 울어 본 적이 있는가?

글 · 윤희림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참가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도 있을까? 김정남 선생의 ‘나와 이 세대와의 대화’를 듣고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국회프락치사건, 인혁당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셀 수 없이 많은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고스란히 그의 인생과 관련해 살아있었다.

내가 책에서만 접했던 이론들이 그에게는 현실 속 인생이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웬지 모를 가슴의 멍멍함을 삼키느라 고생하였다.

이 강의는 1945년 광복이후 약 6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화의 자화상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민주화 발전의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그의 생각과 자부심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아까운 희생을 치렀나? 다시 한 번 눈물과 아픔이 담긴 한 많은 현대사를 되새겨보게 하였다.

그의 강의 내용 중 압도적으로 가슴에 들어와 박힌 말이 있다. 아직도 강한 신념어린 그의 어조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당신은 민족(조국)을 위해 울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조국을 안고 울어보지 않은 자는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이 물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마치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를 쟁취했는지,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있었는지 잊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반성을 하게 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의 신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는 우리 현대사에 대해 ‘광기의 역사’라 명하며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쟁의 수많은 살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광기의 역사’로만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에 따르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끊임없이 치국과 파국을 반복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역사적 원리를 희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나의 생각과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하였다. 또한 그는 외재적 발전론과 내포적 공업화론에 관해서도 장시간 설명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통합과 전진’이며 21세기에 맞춰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 공동체 자체의 내재적 질서를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비교하였는데, 민주화는 도덕적, 가치 지향적, 폐쇄적, 종교 다양, 복지추구, 작은 시장 등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산업화는 그와 반대로 실용적, 미래지향적, 해외 지향적, 기독교적, 성장 중심, 큰 시장의 특징으로 구분 하였다. 이 같은 비교는 민주화가 옳고 산업화가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 두 세력 사이의 화해와 통합의 길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뉴라이트’나 ‘뉴레프트’ 같은 표현 자체가 옳지 않고 이제는 ‘진보’ 또는 ‘보수’란 말을 쓰는 것보다 ‘누가 더 조국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등에 대한 방법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민주화 운동가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땅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을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구성원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일이라며 강의를 끝맺었다. ~~...~~